

대학의 가치와 도전

김준영 | 성균관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변화와 혁신의 21세기를 맞아 대학생태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ICT기술의 눈부신 발달, 모바일에 능숙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교육, 대학 간 경쟁과 협력 등 대학은 급격한 변화에 휩싸여 있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기대수위도 실용적인 연구와 고품질 교육서비스는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 대학들은 과거의 대학들이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로버트 젤스키(Robert Zemsky)와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시장의 힘'이 대학의 전통적인 가치를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대학은 곧 유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런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대학의 르네상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도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재의 도전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가치를 꿰뚫고 실천해 갈 때 대학은 신(新)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커뮤니티도 21세기 창의기반사회에서 대학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담담하고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는지를 토론하면서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평소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생각해 온 대학의 가치에 대해서 되새겨 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가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지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지적 소통을 통하여 미래 사회의 가치를 생산하고, 미래 사회에서 활동할 지성과 인성을 갖춘 시민을 교육하는데 그 가치를 두어왔다. 더불어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환경변화와 사회·문화적 수요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공동체'로서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학생은 대학이라는

지식공동체의 평생회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학도 이러한 새로운 지식공동체 구현을 위한 창조적 혁신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둘째, 대학은 지역사회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개방형 지식공동체로서 발전해야 한다. 대학의 성장과정을 '종(種)의 진화'에 비유하듯이, 오늘날 대학은 지역사회의 수요는 물론 글로벌 사회의 이슈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답해주시기를 요청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역시민을 양성하는 지적, 문화적 중심체로서 그 지역의 미래가치를 열어 갈 대학특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서 대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빈곤, 질병, 환경, 교육, 행복 등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은 심화되고 있는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 마찰과 분열, 그리고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된 사고와 소프트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사회변화의 주제로 분열과 갈등의 골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지성의 등불로서 학술, 문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실제 유럽의 대학들이 사상적·정치적 갈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그 시대와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을 통해 유럽사회의 르네상스를 창출했던 경험을 통찰해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지식공동체인 대학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프트 역량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은 미래사회가 직면하게 될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예측하고 통합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은 참된 정신문화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기술과 정보화가 발전, 심화될수록 인본사상과 인간중심의 가치관은 더 존중되어야 한다. 실제 우리는 제품과 인간이 소통하고 이를 즐기는 '소프트 이노베이션'(Soft Innovation) 시대를 살고 있다. 융복합이 보편화되고 있는 스피드 사회일수록 참된 정신문화에 대한 갈증은 더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자율과 책임, 창의와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성(人性)을 겸비한 통섭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습득하고 소외되고 있는 인간정신과 인간존재의 가치를 정립하고 규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이 전공교육을 뒷받침해 줄 때 사회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한 동양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대학은 인성을 갖춘 통섭형 인재가 존중받는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미래 참된 정신문화를 창달해 가야 할 것이다.

대학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가치를 예측하고, 창조적 도전을 통하여 그 가치를 실천해 갈 때 사회로부터 더욱 존중받는 지성의 전당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스마트 사회의 새로운 지식공동체로서 지역 사회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참된 정신문화의 산실로서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성균관대 경제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재정학회 회장, 교육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북미주교등교육연합회 이사, 대교협 부회장,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총장, 2014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